



[라이프] 식단부터 멘탈까지 건강도 구독경제 너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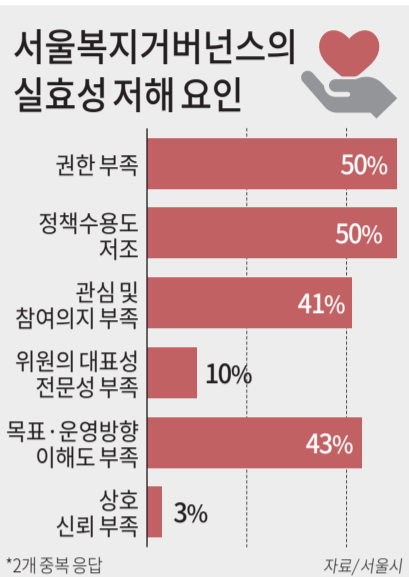
노인일자리 만들기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 “실효성 낮은 서울복지거버넌스, 예산 등 행정 실무지원 절실”

## 서울복지거버넌스 정책 반영 어려워 권한·책임 없어 실행력에 한계점 실무지원 강화·예산 지원 등 필요

서울시 민관협의체 ‘서울복지거버넌스’가 제안한 의제들이 시책 사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민관 협치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복지거버넌스는 서울시가 심층적인 복지 실현과 민관 협치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 2014년 출범한 기구다. 복지거버넌스 위원회는 시민, 전문가, 복지종사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거버넌스는 시민과 복지 현장과의 소통 체계를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정책 수립과 집행·평가 전 과정에 민관이 협력,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7월11~15일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 103명을 대상으로 벌인 거버넌스 운영 평가 설문조사에서 ‘제안된 의제에 대한 서울시 정책사업 반영도’를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73%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정책사업 반영도가 ‘보통이다’는 응답자가 46%로 가장 많았다. ‘다소 안 되는 편이다’는 22%, ‘매우 안 되는 편이다’는 2%로 집계됐다.

정책사업으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행정위원의 관심과 참여의지 부족’이 34%로 가장 많이 꼽혔다. ‘사업추진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24%), ‘제안의 제가 정책으로 활용되기에 부적절’(23%), ‘책임 소재 불분명’(17%)이 뒤를 이었다.

위원들이 서울복지거버넌스의 실효성을 저해시키는 요인(2개 중복 응답)으로 가장 많이 든 것은 ‘정책 수용도 저조’(50%)와 ‘권한부족’(50%)이었다. 이어 ‘목표와 운영 방향에 대한 이해도 부족’(43%), ‘관심과 참여의지 부족’(41%), ‘위원의 대표성·전문성 부족’(10%), ‘상호 신뢰 부족’(3%) 순이었다.

서울복지거버넌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요소(2개 중복 응답)로는 ‘행정의 실무지원 강화’가 67%로 1위를 차지했다. ‘정책 역량 강화’(52%), ‘법률조례에 역할과 권한 명시’(48%), ‘참여위원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20%), ‘위원 재구성’(11%)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서울복지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묻는 항목에 전체의 31%가 ‘예산’이라고 답했다. ‘담당인력’(25%), ‘위원회 조례제정’(24%), ‘교육’(11%), ‘정보’(5%)가 뒤를 이어서 서울시의 행·재정적인 서포트가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가 올 8월 펴낸 ‘서울복지거버넌스 백서’(더하여 꽃피우다)에 의하면 ▲복지 현안 논의를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현장 기반의 정책 수립·실천 ▲복지거버넌스 위원들의 역할 정립 ▲복지 실현을 위한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 등이 거버넌스 발전 방향으

로 제시됐다.

서울복지거버넌스 아이돌봄분과위원장인 김주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돌봄사업실 실장은 백서에서 “거버넌스 운영의 활성화는 인력, 체계(시스템), 사업, 네트워크라는 네 가지 큰 틀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회의 수당만으로는 거버넌스 활성화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과 책임이 없고,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 실행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한계점이 두드러진다”면서 “거버넌스는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 수렴, 논의 결과에 대한 실행력이 동반돼야 하나 현실은 막다른 길에 가로막혀 있다. 그래서 더욱더 민관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따릉이, 광고 달고 달린다... 사업자 입찰공고 ‘365열린어린이집’ 용산·강동구 추가

## 프레임·안내간판 등에 광고 표시 수익구조 다변화 위해 시범 도입

서울시설공단은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따릉이 광고 사업권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광고가 표시되는 위치는 ▲따릉이 프레임 ▲대여소 안내간판 ▲따릉이 앱 ▲따릉이 홈페이지 총 4곳이다. 공단이 운영 중인 따릉이 자전거 4만1500대와 2677개 대여소에 광고물 부착이 가능하다.

광고의 형태는 따릉이 로고 우측에 기업 명칭을 병기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따릉이의 친근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 제품의 광고가 아닌 기업 이미지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울시

홍보로 단순화했다”며 “광고기업 명칭 등이 표기된 단일 디자인을 모든 따릉이 광고 매체에 게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찰 참여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광고업’ 또는 ‘광고대행업’이 등록돼 있어야 한다. 낙찰받

은 기업은 향후 2년 동안 기업명 또는 기업로고를 광고 위치에 표기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공모 요강을 참조하면 된다.

입찰에 참여한 기업 중 최고 가격을 써낸 곳이 광고를 낙찰받는다. 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 부착은 낙찰자 부담 하에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에 공단과 협의해 추진할 수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따릉이의 회원수는 361만명이며, 누적 이용 건수는 1억1780만건에 달한다.

이상훈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따릉이는 시민을 위한 교통복지서비스로 자리잡은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구조 다변화의 일환으로 광고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365열린어린이집’ 용산·강동구 추가

서울시, 기존 7곳서 9개소로 확대

서울시는 휴일·야간 일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365열린어린이집’을 용산구, 강동구에 신규로 지정해 기존 7곳에서 9개소로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는 ▲용산구 동빙고어린이집(이달부터 이용 가능) ▲강동구 구립 꿈사랑어린이집(내달부터 이용 가능) ▲종로구 조은어린이집 ▲중랑구 햇살아래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성북구 성신어린이집 ▲노원구 상계5동보듬이나눔이 어린이

집 ▲마포구 연봉어린이집 ▲양천구 양천구청 직장어린이집 ▲관악구 구립성현햇살어린이집 등 총 9개의 365열린어린이집이 마련돼 있다.

이들 어린이집은 365일 24시간 일시 보육을 제공한다. 가정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제 보육과 유사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용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미취학 영유아이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3000원(식대 2000원 별도)이다.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후 이용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 고양특례시,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선정

성주류화 적극 이행, 공무원 교육 강화

고양특례시가 여성가족부 주관 ‘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성별영향평가 유공 포상은 성별영향평가제도 활성화

에 기여한 기관 및 유공자를 포상하여 관계자 사기 진작과 양성평등한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실시된다.

고양시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전문적 운영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법령의 제·개정, 정책의 기획 등 법령에 따라 직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조치’를 적극 이행하는 한편 공무원 대상 컨설팅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그 결과 성별영향평가 추진 건수가 2016년 총 161건에서 2021년 총 259건으로 60% 이상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정책개선율도 2018년 33%에서 2021년 56%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9월 15일 (木) 음력 : 8월 20일

수도권 날씨 21~2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14 | 해질 / 18:4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U-18 야구대표팀, 네덜란드 1-0 제압... 슈퍼라운드 진출 /사진 뉴시스  
▲롯데 자이언츠,故 최동원 선수 11주기 추모행사

▲헌트 관객수, 429만 돌파... 손익분기점·천만 관객 ‘기대’  
▲‘공조2’ 개봉 7일만에 손익분기점 돌파... 누적 354만명



▲기아 타이거즈도, 전북 현대도 유니폼에 ‘엑스포 유치’ 엠블럼  
▲손흥민 8경기째 침묵... 토트넘, 스포르팅에 시즌 첫 패배 /사진 뉴시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